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장 3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0년도 서리집사임명

충현제자훈련 수료자로 남·여 2,061명

교회는 지난 12월3일(주일) 1부 예배로부터 4부 예배시에 1990년도 헌신할 남·여 서리집사와 구역일꾼인 권찰을 임명했다.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강경의 집사와 2,061명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과 기도, 그리고 공포의 순서가 있었다.

기획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자 신임임직자는 126명, 재임명 580명, 계 706명, 그리고 여자는 신임임직자 227명, 재임명 1,128명, 계 1,355명, 총계는 2,061명이다. <관련기사 3면 충현프리즈 참조>

<서리집사 명단은 지난주 유인물로 배포되었으므로 본보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권사회 조직 회장에 이옥녀 권사

충현교회 조직 및 사무분장 규정 제2장 제5조(당회소속기관) 11항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에 의거

본교회 권사회 회장 및 지회장을 임명했다.

임명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옥녀 권사

제1지회장: 윤재춘 권사(제1, 3, 11, 13교구)

제2지회장: 이신일 권사(제2, 8, 9교구)

제3지회장: 한영숙 권사(제5, 7, 12교구)

제4지회장: 전순자 권사(제4, 6, 10, 14교구)

서 기: 백영희 권사

부 서 기: 박은숙 권사, 박영엽 권사

회 계: 이승자 권사

부 회 계: 노영숙 권사, 신일순 권사

위탁교회 승인 전도위원회

전도위원회가 청원한 위탁교회 승인을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인준했다.

▲ 성심교회(배동일목사 사무)=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지원처 김동삼장로)

▲ 애일교회(권오천목사 사무)=충남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12교구 무명)

스데반회 임원구성 회장에 김여순 집사

당회는 스데반회(안수집사 모임) 임원진을 승인했다.

90년도에 일할 스데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여순 집사

▲서기/ 나희주 집사

위임목사 동정

▲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 총회

12일 오후7시 소석관 203호

89년도 교육위원회 총회가 오는 12월12일(화) 오후 7시 소석관 203호실에서 개최된다.

교육위원들의 전원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학원선교회 총회

10일, 오후2시30분 본당 602호

본교회 학원선교회 총회가 12월 10일(주일) 오후 2시30분 본당 602호 학원선교회실에서 개최된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새가정부 특강

17일, "자연식과 건강"

새가정부(부장: 박승준장로)는 "자연식과 건강"이란 제목의 특강을 오는 12월17일(주일) 오전11시 소석관 201호(새가정부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본교회 조경옥 권사이다.

24일, 성탄축하 기쁨의 행사

교회학교 유·초·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계절인 12월이다.

본교회는 성탄축하예배를 비롯하여 축하 음악의 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유·초·소)대상에 사랑의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들을 갖기로 했다.

성탄 이브인 24일 저녁에는 연합찬양대의 축하 찬양의 밤이 있고, 25일(월) 오전 9시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합동축하예배, 오전 11시에는 장년 성도들의 성탄예배가 있다.

25일 오후 7시에는 유·초·소 교회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음악 및 무용, 성 시 낭독, 대화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24일 저녁예배 후에는 장로들이 산타클로스로 분장하여 유·초·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기쁨과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멋진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충현 새가족 환영회

지난 11월에 본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부



▲ 피택권사 교육이 매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 훈련으로 충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를 갖고 있는 모습

카 메 라 초 점



▲ 영어주일학교 성인반 성경공부 모습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 30분, 교사 존·워너박사)

양, 이종윤위임목사의 환영의 말씀이 있었다.

만남의 시간과 새가족 소개가 있은후 이종윤목사 축도로 마쳤다.

자원봉사자 찾음

본교회 차량관리부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충현교회 등록교인으로 만 20세~60세의 남성도 가운데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실 분은 동관리부 사무실(지하1층 101호)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1990년 영어성가대원 모집

내년부터 영어예배를 위해 봉사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세례받은 외국인 또는 한국인

※모집일자: 1989. 12. 10까지

※신청장소: 사무국(소석관 101호)

1989. 12.3

서은성가대장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23)



가롯 유다를 택하신 이유

(1) 예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히 10:7). 그러나 가롯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산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제길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과 마귀의 편에서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여러 증거에다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하셨으니 가롯 유다의 증거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4). 예수님의 대적자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증거를 받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3) 인생은 죄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롯 유다는 3년 간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비교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들, 과감하게 잘라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느꼈고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다가 그것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의 자비하심이 한량없으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는 한점의 교만도 없고 노하지는 일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인내하지 못함도 없고 능력의 결핍도 없고 이기심 같은 것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는 분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롯 유다의 가슴 속에는 선생을 대적할 만한 교만이 꼭 찔고 분노와 욕심과 참지 못함과 자제하지 못하는 혈기와 이기심으로 꼭 찔습니다. 거짓과 시기, 질투로 꼭 찬 가롯 유다가

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는 사업체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중공군처럼 수만명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섞여 있다면 열 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가롯 유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5) 예수님의 추종자 가운데는 반드시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무도 가롯 유다를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유다야말로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자신도 자기가 가장 신실한 제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롯 유다를 일컬어 양의 가족을 쓴 이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김일성이 무서워 하는 것은 남한의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을 무서워 하는것도 아닙니다. 일천만 기독교인의 세력을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파괴작전을 전개하는데 재미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충성 맹세 하므로 코가 다 깨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도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시점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첩이 들어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 교회를 파괴시키고 신학생, 목사가 되어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이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롯 유다가 되지 않도록 물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6)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마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의 판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다 철저한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고 가롯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와 있는가. 자기를 위함인가 그리스도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본문 / 요 6:69-71

베드로는 나사렛 목사의 아들 예수라는 분을 따라 다니다가 인간 가운데는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으로 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더 무섭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세계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 옛날 열 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라고 지칭하신 가롯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면 가롯 유다는 역울한 희생의 제물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분”

다. 시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신뢰하시므로 재정 부장을 맡기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자입니다.

본문 17절에는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 자’는 영어로는 Should 헬라어는 ‘에멜렌’으로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당위적인, 불가피한 미래,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 확실성이 있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를 놓고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같은 계획을 세우셨는가고 기독교를 헐뜯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 편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러한 가롯 유다가 있으므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 순종과 죽음의 자리를 택하신 그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그와 교제를 했지만 마귀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롯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도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다면 나도 마귀의 종입니다.

다. 기독교에서 기복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지 돈벌이 땅 사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이고 행동이 안 움직입니다.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도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고정시킨 확고한 마음입니다.

(2) 예수님의 지고한 도덕성을 보여준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를 하였고 사도들이 또 증거를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죄책과 불안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떨다가 마지막에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가 자기가 격어지는 바람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자살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결국을 우리는 압니다. 가롯 유다의 최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가공할 만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밝은 빛에 오면 올수록 죄가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회개도 깊이 못하나 성자의 지경에 이른 사람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의 무서운 공포를 배우게 됩니다.

(4) 죄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준다.

자랑스러운 충현교회교인이 되어 말씀도 듣고 봉사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여기다가 뛰어 다니기도 했는데 마지막 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적도 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도 하고 그를 믿고 따르다가 보았으나 중요한 것은 중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99%가 아니라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한 쪽은 세상에 한 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

충현프리즘

서리집사 임명

지난 주일(12월3일) 1990년도에 수고할 남여 서리집사 2,061명이 임명되었다.

사실상 후보대상인원은 2,392명이었으나, 「충현제자훈련」 미수료인 관계로 부득이 331명이 이번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8월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주간충현과, 후보광고판을 위한 사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이용하여 직분 후보들은 의무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을 것을 누차 강조했다.

충현의 서리집사는 집사임명을 받기전에 영성훈련을 받고 주님의 충성하는 자기결심과 사명감이

“제자훈련 미수료자 서리집사 임명서 제외 교사는 한부서 3년 봉사자는 타부서로 이동”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있는 일꾼의 자격을 갖춘자를 원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12차에 걸쳐 훈련기회를 주었지만 아직도 수료 못한 일꾼들이 있어 못내 안타까웠다. 물론 개개인의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도 심문 이해하면서 임명을 제외시킨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새로운 진통임을

다행히 당회는 미수료자에게 다시한번 훈련기회를 90년 1월중에 주기로 했다. 동훈련에 꼭 참석하여 추가임명 대열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더욱 기도하자.

교사배정 원만히 끝나

90년도에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교사배정작업이 완료되어 12월10일(주일) 4부예배후 임명식이 있다.

이번 교사배정에도 예년과 같이 교사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교회학교 별로 분류작업과 3년간 한 부서에서의 봉사교사들

을 이동하는 일에 위원모두가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90년도에는 27개 교회학교에 약 1천1백여명의 교사들을 배정하느라 무척 진땀을 뺐다. 교사중에는 동명이인도 있고, 부부교사도 있고, 또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의 얽히고 설킨 인맥 관계로 분류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혹 이번 임명에서 교사중 단 한분이라도 부서 배치에 대하여 마음에 섭섭함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직은 주 특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배정 되었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해 줄것을 교회는 바라고 있다.

을 주고 있습니다.

4. 주차장 주차시는 반드시 자동차 앞쪽을 교회벽쪽으로 향해서 교회벽에 연거나 기름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화단부근 주차시에는 화단쪽으로 차 앞부분을 향하여 주차하셔서 매연에 의한 화단 손실을 막도록 합시다.

三. 현 주차장별 주차 보유대수

주차장명	자동차주차 보유대수	비고
제1주차장(지하 101호)	200 대	
제2주차장(지하 202호)	200 대	
제3주차장(성전 뒷뜰)	250 대	
제4주차장(선교관앞뜰)	50 대	
제5주차장(소석관앞뜰)	30 대	
제6주차장(외 각 서 쪽)	130 대	
제7주차장(성전들도로)	50 대	특별 행사
계	910 대	

四. 주일 예배 주차 대수

예배부명	차량주차대수	비고
제1부 예배	116 대	
제2부 예배	420 대	
제3부 예배	639 대	
제4부 예배	430 대	
계	1605 대	

1989년 11월 현재

안전위한, 주차질서를!

문홍구(집로·차량관리부장)

우리교회 성도들의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추세로 나타나 1988년 말 주일 평균 50대였고, 1년이 지난 89년 12월5일 현재 지난해의 배에 가까운 1,800대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것은 무척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차량관리부는 교통정리와 주차 정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차는 증가추세여서 주차장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시는 성도여러분께서는 스스로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현재까지도 교통질서 및 주차질서를 잘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미숙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량관리부는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다시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차량관리부는 성도님들의 차량질서를 위하여 주차장 별로 주차 정리조와 교통 정리조로 구분하여 매주일 1부 예배시부터 4부예배시까지 차량주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안전 주차 질서를 위하여 차량관리부 안내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현주차장 질서와 교통질서 안내 주의점

1. 주차는 운전의 일부입니다. 주차하는 모습으로도 운전자의 운전매너나 교양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듯 주차는 자동차 생활의 필수적인 한부분입니다.

2. 충현교회 주변 도로상 주차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교회정문, 주말이면 대단히 혼잡하고 위험하오니 정문에서는 하차를 피하시고 주차장에 들어가셔서 꼭 하차하여 운전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주차장에 주차하실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생각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장애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 성전 우측 뜰에 주차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현 주차방법

1. 지혜롭고 안전한 주차방법을 알아두어

쾌적한 자동차 생활을 하는 충현 성도가 되십시오.

2. 주차장 주차하실 때에는 주차선을 잘 지켜 주차하여 주십시오.

3. 주차장 통로에 부득히 주차시에는 ① 기어를 중립에 놓고 ② 싸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③ 핸들을 똑바로 놓은 다음 문을 잠가 주십시오. 주차 1대 저장으로 100대의 저장

장소 고유명칭 확정

본교회 본당을 비롯한 교육관(소석관), 선교관 각호실에 고유명칭이 제정되어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장소 이름배정 내역

구분	호수	실 이름	사용 내역	규격(m)	비고
본당(Ⅰ)	B101	호 산 나 홀	찬양연습실		
	B102	할렐루야홀	찬양연습실		
	B103	임마누엘홀	찬양연습실		
	B104	아멘홀	영아부		
1층	101	갈릴리홀	중등부 예배실		
			영아예배실		
			살롬대학		
			소망부		
2층	107	나사렛홀	찬양종합연습실		
	110	베다니홀	새신자 예배실		
	112	베들레헬홀	탁아부		
	201	본당	대예배실		
3층	203		안내, 상담실		
	202		예배위원회실		
	301		본당 2층예배실		
	306	다락방	여전도협의회		
4층	307	다락방	여전도협의회		
	308	다락방	핸드벨		
	309	다락방	핸드벨		
	401	다락방	안수집사		
5층	402	다락방	남전도회연합회		
	403	다락방			
	404	다락방	법조인관양위원회 및 피스실		
	501	음향실	앰프로조정실		
6층	601		학원선교회		
	604		교수선교회		
	701				
	703				
소석관(Ⅱ)	102	사부국	종합사부절		
	107	요한홀	사랑부		

성경지명 및 예수제자 이름으로

기획실에서 마련한 동장소 명칭은 가능한 50㎡에 적용하되, 본당은 성경의 지명으로, 소석관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으로, 그리고

선교관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제정된 장소 명칭은 도표와 같다.

2층	109	누가홀	에바다부
	201	안드레홀	새가정부예배실
	205	다대홀	유치부 예배실
	208		유치원
3층	209		유치원
	212	바드로메홀	유년부·세례부
	301	마리아홀	초등부·유년부
	303	모세홀	교사회의실
4층	307	마태홀	원로목사실
			소년부 예배실
	314	빌립홀	장년 3부
			초등부 예배실
5층	407	야고보홀	장년 2부
			장년 1부집회실
	414	시몬홀	중등부 분반공부
			직전부 집회실
6층	507	유다홀	청년 2부
			고등부 예배실
	514	마가홀	대학부 집회실
			중등부 분반공부
7층	602	베드로홀	청년 1부집회실
	701	디오데홀	만남의 집
선교관(Ⅲ)	B201	메추라기홀(Ⅰ)	색 당
	B202	메추라기홀(Ⅱ)	조식 당
	B306	만나홀(Ⅰ)	식 당
	B107	만나홀(Ⅱ)	소식 당
1층	102	마르다홀	교구실
	103	엘리사홀	교역자실
	202	도서관	도서실
	304	마울홀	당회장 집무실
2층	405	아볼로홀	전도위원회
	406	바나바홀	새계선교회
	501	아론홀	당회실

여전도회활동 이모저모

웅정교회를 다녀와서

에스터 여전도회 1지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 서면에 위치한 웅정교회를 1989년 마지막 행사로 12월 4일(월) 방문하였다.

입시철과 월동대책 그리고 한해를 마무리

“주민 많은 곳으로 교회당이전 필요
이농가구 늘고 축호전도도 어려워”

하는 시점에서 오로지 사명감 때문에 시간을 바쳐 동참해 주신 한나 여전도회 박 옥식권사님과 디모데 남전도회 최 종식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에스터 여전도회 10명의 회원을 포함 12명이 방문하였다.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는 듯 일기도 화창하여 아침 8시 50분 출발해 3시간 걸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아니하였다.

웅정교회를 답방하고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입구에 마중 나와 안내를 받고, 마침 영월지방의 교회들이 매월 첫 월요일마다 모이는 월례회가 웅정교회에서 거행되어 우리와 같이 뜻있는 예배를 30여분간 드렸다.

웅정교회는 1962년도에 세워진 교회이며, 당시에는 50가구가 사는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타지방으로 전출하고 18가구만이 사는 마을이 되어서 교회 출석 가구는 10여세대 정도라고 한다. 그래도 면에 다니는 미혼 여성도 한분이 교회재정의 50%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결혼예정이라서 이곳을 떠나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우리의 기도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민수가 많은 조금 떨어진 위치로 교회이전하는 것도 소망하고 있으며 기도요청을 하였다.

교회 여집사님들께서 정성껏 마련하신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강원도 명물인 감자송편은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별미였다.

2시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간 선물과 지원금, 감사헌금을 전달하였다. 성찬상은 에스터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협조해 주심을 강조하였고 이미 전달되어 사용되고 있는 난로도 에스터 여전도회 10지회에서 협조해 주심을 강조하였으며 이 지면을 통해 다시 감사드린다. 전도사님 가족을 위한 방한복은 전화 음성으로만 추측하여 준비한 것이

데도 크기는 물론 색깔지도 잘 맞아 준비하는 임원의 손길을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렸다.

山水가 수려한 자연 경관과는 달리 이농가구도 늘고 축호전도도 어려워 여러가지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젊은 전도사님 내외분께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여 5시 30분 무사히 도착하였다.

어려운 도로를 부드럽게 운행해 주신 장집 사님께도 다시 감사를 드린다.

등록교인중 군복무를 하고있는 청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각 교구들은 자녀들이 군복무하고 있는 부대 주소와 성명, 그리고 현재 복무기간 등을 적어서 전도부로 알려주면 교회서 마련한 선물을 보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도위원회로 문의하기를

이옥녀 권사 충현 기도원에
전자올겐 기증

본교회 권사회 회장인 이옥녀 권사가 충현 기도원에 전자올겐을 지난 6일 기증했다.

윤태곤 인도네시아 선교사
체류비자 만기로 사역종결

세계선교회는 윤태곤 인도네시아선교사 사역종결을 당회에 보고했다.

동 보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체류비자가 만기되어 사역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선교지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윤태곤목사는 본교회 선교사직이 자동상실 되었다.

윤목사는 화곡동 소재 성산교회로 부임했다.

파키스탄 의료선교 위한
자동차 구입비 헌금

본보 지난호에 보도된 것처럼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 제4교구 소속 박경렬, 김현승 부부가 지난주 헌금을 해 왔다.

이 헌금은 파키스탄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복무 청년에게
위문의 선물준비

전도위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충현교회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2월 15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50과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히 12:1-3

요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상)

찬송: 429, 434장

서론: 사람이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시간에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생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 예수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사 스스로 특독되고 자유롭게 되시는 일 따위야 얼마나 손쉬운 일이었는가? 오직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기만 하셨더라면 그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 대신 치루어야 할 구속적 희생이시라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걸어서 세상에다가 구속을 안겨주는 그런 희생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골고다에서의 죽음의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부르짖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 길대로 밟고 나가신 것이다(요 18:30). 결국 그리스도인의 참 승리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는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며 순종하는 모습이다.

2. 예수께서는 믿음의 인도자시요 완전한 본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실천적 믿음을 지니셨다. 믿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에서 볼때 예수께서는 이미 이런 믿음을 성육신(成肉身) 이전에 행하셨다. 실로 그는 창세이전에 그런 믿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셨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결코 없다. 아들이 영원부터 아버지를 분명히 신뢰해 오셨던만큼 그 아들이야말로 믿음을 실천하신 최초의 인물이며 따라서 그분이 바로 믿음의 발생자이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믿음을 끌고 나가셨으며 따라서 믿음을 온전케하시는 자가 되셨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속에 나타난다. 명백한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각에 이 외침을 털어놓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3. 예수께서는 확고한 소망가운데 당당한 승리자가 되셨다.

고난을 참으시고 바라본 그 앞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에 속한 즐거움이였다. 완전한 구속, 아버지의 영화, 완성하신 사역이후에 영광중에서 승리자이신 그분이 취하실 개인적인 지위등이다. 사실 이것은 그분이 끝까지 확고하게 정도를 밟으실 경우 얻게될 그런 성격의 보장된 즐거움이다. 이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앞에 놓여진 기쁨을 바라보면서 혼란하고 답답하며 억울함이 가득한 이땅위에 성도들의 걸음 걸음은 깊숙히 임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붙잡는 생애이어야 한다.

4.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모범자이시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권고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기장에서 그를 따르는 격려를 얻자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박히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참된 재산이 되어있고 우리 생애의 중심이 되어있는 곳에서라면 항상 거룩한 기쁨 하늘에 속한 성품,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진실로 우리의 축복의 분깃이 된다. 십자가는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분깃이 된다.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다. “새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옛것”이 먼저 사라져야 하는 법이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목표)은 어디인가?
2. 현재 고난과 아픔, 지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인해서 앞에 약속하신 즐거움을 소망하는가?

공동기도문

다시한번 우리의 생의 눈금을 정리하면서 초점과 방향을 고정시켜주시고 새로오는 날들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옛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